

‘금의환향’ 김학범호 “올림픽서 꼭 메달 따겠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첫 우승을 일궈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과 첫 아시아축구 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한 김학범호가 빛나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금의환향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2020 AFC U-23 챔피언십 일정을 모두 끝내고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김 감독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과 힘을 합쳐서 얻은 우승이라 더 값지다”라며 “도쿄올림픽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거둔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U-23 대표팀은 AFC U-23 챔피언십에서 6전

전승의 화려한 성적으로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더불어 이번 대회 결승 진출로 2020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까지 품에 안으면서 한국 남자축구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도 세

웠다. 이날 입국장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전무 등 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출동해 선수단을 반겼다. /연합뉴스

새 번호 달고 다시 뛰는 호랑이들



17번 임기영



22번 터커



11번 이민우

임기영 38→17...이민우 19→11
좋은 기억 있는 번호로 교환
이적 홍상삼 21·나주환 6번 선택
새시즌 새마음으로 좋은 성적 다짐
안치홍 달던 8번은 주인 못찾아

2020시즌 새 번호를 달고 새로 뛰는 ‘호랑이’들이 있다. 백넘버는 야구 선수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KIA 타이거즈 팬들은 54번 하면 양현종을 떠올린다. 3번도 김선빈을 떠올리게 하는 고유 번호. 김선빈은 우여곡절 끝에 KIA와 FA계약을 맺으면서 올 시즌에도 ‘3번’ 유니폼을 입고 뛰는다. 지난해 이범호의 은퇴식에서 대선배의 25번을 물려받았던 박찬호도 올 시즌 25번을 자신의 번호로 삼았다. 하지만 새 번호로 새 시즌 각오를 다지는 이들도 있다. 지난 시즌 막바지 선발로 어필 무대를 가졌던 우완 이민우, 좌완 이준영, 사이드암 임기영은 나란히 번호를 변경한다.

이민우는 후배 박정수와 번호를 교환, 19번에서 11번으로 번호를 바꿨다. 이민우는 “(경성대 시절) 잘했던 번호다. 정수도 19번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둘이 바꿨다. 새해 새 마음으로 할 생각이다”고 번호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좌완 이준영은 65번에서 15번으로 바꿔 달았다. 이준영은 “주니어에서 번호를 바꿔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15번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예뻐 보이고, 낮은 번호를 달아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임기영에게도 17번은 경북고 시절 좋은 기억이 담긴 번호다. 임기영은 “예전부터 달고 싶던 번호였다. (고)장혁이 형이 17번을 단다고 해서 불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 형이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17번을 노렸던 고장혁은 대신 52번을 달고 뛰게 됐다. 고장혁은 “기영이가 불 때마다 17번을 주라고 이야기했다. 그 집념이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웃음)”며 “52번은 경찰청 때 달았던 번호다. (52번을 썼던) 터커가 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단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2번을 썼던 터커는 올 시즌 22번 유니폼을 입는다. ‘신입 외국인 선수’인 드류 가능한

40번, 애런 브룩스는 36번을 자신의 번호로 선택했다. ‘우타거포’로 주목을 받는 이우성도 새 번호로 새 출발 한다. 지난 시즌 NC와의 트레이드로 이적한 이우성은 해틀메이커가 남기고 간 5번을 사용했지만 올 시즌에는 37번을 쓴다. 투수 박지훈이 은퇴하면서 남긴 번호다. 이우성은 “지난해 5번 달고 못했다(웃음). 매년 33번을 달았었다. 그런데 그 번호 달고 나서 계속 트레이드가 됐다. 야구 잘해서 트레이드 안 되려고 번호를 바꾸었다. 올해는 37번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예비역’이 된 김호영은 원래 번호였던 53번을 달고 복귀전을 준비한다. 두산에서 영입한 투수 홍상삼은 21번, 무상 트레이드로 이적한 나주환은 6번을 선택했다. “23번”을 달고 타석에서 위압감을 과시했던 최희섭은 78번 유니폼을 입고 지도자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한편 안치홍으로 대변되던 ‘8번’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정식 번호를 받는 두 신인 내야수도 다른 번호를 달 예정이라, KIA의 8번은 일단 빈 번호로 남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준태 가고 장영석 오고 KIA, 키움과 트레이드

KIA 타이거즈가 외야수 박준태와 현금 2억원을 내주고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장영석을 받아냈다. KIA가 29일 키움과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내야수 장영석을 영입했다. 우투우타인 장영석은 지난 2009년 부천고를 졸업하고 히어로즈에 입단한 12년 차 선수다. 경찰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한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423경기에서 나와 타율 0.233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19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7(372타수 92안타) 7홈런 62타점 41득점의 성적을 냈다. 키움으로 이적하는 박준태는 지난 2014년 인하대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 프로 통산 4시즌 동안 206경기에서 나와 타율 0.210, 5홈런, 34타점, 66득점을 기록했다. KIA 관계자는 “장영석은 내야수로서 활용도가 클 뿐 아니라, 중장거리형 타자로 팀 타선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트레이드를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계 ‘우한 공포’

도쿄올림픽 예선 개최지 바꾸고 AFC 챔피언스리그 PO 무관중 경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 등 스포츠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이 개최권을 얻은 2020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의 개최지를 바꾸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는 무관중으로 치른다. 여자농구와 여자축구, 복싱 등 중국에서 올림픽 예선을 치르려던 종목은 개최지를 세르비아, 호주, 요르단으로 바꿨다. 가장 먼저 개최지 변경을 결정한 종목은 복싱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복싱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26일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3월 3~11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복싱 종목의 도쿄올림픽 예선은 애초 2월 3~14일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탓에 중국올림픽위원회와의 논의 끝에 일정을 조정했고, 개최지도 요르단으로 바꿨다. AFC도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B조 예선을 중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에서 치르기로 했다. 올림픽 출전권에 도전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행을 놓고 중국, 호주, 태국, 대만이 경쟁하는 이 대회는 애초 2월 3~9일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난징으로 장소를 바꿨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결국 중국을 벗어난 곳에서 열리게 됐다.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도 원래 개최 예정지인 중국 광둥성 포안시 아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다. 대회 일정은 2월 6~9일로 변화가 없다. 베오그라드도 변경된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C조 경기다. 한국은 내달 6일 스페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8일 영국, 9일 중국과 차례로 맞붙을 예정이다. 중국 항저우에서 2월 12~13일에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취소됐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주는 랭킹 포인트가 걸린 대회지만, 선수 건강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3월 13~15일에 예정된 중국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세계육상연맹은 신종 코로나 감염이 3월에도 잦아들지 않으면 세계실내육상선수권 개최지와 개막 시점을 바꾸거나, 대회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클럽 대항전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중국 상하이의 위안선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28일 열리는 상하이 상강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는 관중 없이 맞대결한다. /연합뉴스

고진영 아성 무너뜨릴 선수 누구?

올림픽 출전 선수 6월말 볼렉스 랭킹따라 결정...고진영 견고한 세계 1위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골프계는 세계 랭킹에 주목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출전 선수는 6월 29일 발표되는 볼렉스 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볼렉스 랭킹은 여자골프 세계랭킹의 이름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는 28일 홈페이지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볼렉스 랭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일인자인 고진영(25)의 입지는 견고하다고 보도했다. LPGA는 “2006년 2월 21일 창설된 볼렉스 랭킹은 지금까지 9개국 출신 14명의 세계랭킹 1위를 배출했다”며 “현재 1위는 한국의 고진영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28일 발표된 랭킹에서 고진영의 포인트는 8.84점

으로, 2위 박성현(27)의 6.25점보다 2.59점 많다. 2위 박성현과 18위 유소연(30·3.61점)의 차이가 2.64점인 점을 고려하면 고진영이 얼마나 확고하게 1위 자리를 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박성현은 세계랭킹 3위 넬리 코르다(미국·6.14점), 4위 하타오카 나사(일본·5.79점), 5위 대니엘 강(미국·5.72점), 6위 김세영(27·5.37점)과 1점 이내로 추격을 받고 있다. LPGA는 “고진영이 견고한 1위로서 새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고진영 뒤에서 많은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고진영을 따라잡으려면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여러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진영이 지난해 ANA 인스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 등 2개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브리티시 여자오픈 공동 3위, KPMG 위민스PGA 챔피언십 공동 14위, US여자오픈 공동 16위 등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랭킹을 끌어 올린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LPGA는 “올림픽 출전권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은 2016년 올림픽 때도 그랬듯이 한국”이라고 전했다. 한국 여자골프는 도쿄올림픽에 4명을 내보낼 수 있는 가운데 고진영과 박성현, 김세영과 세계랭킹 8위 이정은(24)이 가능성을 높여냈다. /연합뉴스